

서평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

하나님의 손길, 그 암호에 접선하라

I. 책에 가까이

흥미로운 책 한권이 배달되었다. 홍성사에서 펴낸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미아타 미즈오 지음, 양현해 편역, 2015). 그간 잘 알려진 익숙한 동화에 관한 에세이에서 그러지 거부감 없이 책장이 넘어갔다. 책 읽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던 이유는 소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동화를 이렇게 독해해 내다니! 동화 해석이 독창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굳이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동화, 인문학적으로 들여다 보기”, “동화, 그 신화·철학적 접근”, “동화, 기독교세계관으로 다시 읽다”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겠다.

책은 편역이므로, 저자의 여러 글을 한 권에 묶은 것이다. 편집의 의도는 제목에서 드러나는데, 동화는 문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에서 보다 깊은 의미의 심해로 나아가는 길이라 본다. 전제는 이렇다: 동화는 절대 가치가 묻혀있는 지혜의 보고이다. 동화에는 심오한 사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의 은하계이다. 저자의 풍부한 인문학적 임상실력은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다: 동화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에 장식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의 세계가 내재해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에서 한발자국씩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사유가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 아닌가 한다.

II. “발칙한” 미아타 미즈오

저자는 동화에 대한 관점을 혁신하라고 말한다. 경쟁사회, 이윤사회, 압박사회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유행, 무형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자기 실현”에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때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어떤 행동이 현대인들을 자기 실현에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인가. 미즈오는 동화를 추천한다. 동화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아타 미즈오 지 | 양현해 역
홍성사

저자는 동화 안에 “인생의 의미”,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안내한다. 동화를 만나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 동화는 성공한 셈이다. 동화는 “자기 자신을 향해 여행”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왕국을 향한 여행”이라고 규정해준다. 동화를 다루는 미즈오의 발상은 그러므로 발칙하다. 기존 관념을 확대시키며 동화를 어떤 종교적 가치를 담고있는 경전처럼 읽어보라고 권하기 때문이다. 그런 소개가 결코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의 부드러운 자세 때문이 아닐까? “... 동화의 세계는 우리의 감정과 감수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정신의 실재장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린 상상력을 배양해 줍니다. 이 회화적인 언어가 만들어 내는 경험의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던 일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한층 유연한 감수성과 삶의 방식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은 근원적인 경험으로까지 되돌려져 투명하게 되고, 우리는 인생의 심층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p. 18-19)

이 책은 내 개의 동화를 상세하게 읽어내며, 거기에서 삶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림 형제의 <생명의 물>에 관해서는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서”, 안테르센의 <별거뿔은 입금님>은 “진실의 거울과 마주하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다”, 그림 형제의 <대부가 된 죽음의 신>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다뤄진다. 여기에 다양한 접근은 당연하다: 심리학, 신화, 종교학 등이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독자는 저자가 안내하는 울창한 숲으로 인도되고,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도 들겠지만, 미즈오는 차근차근 숲 속의 길이 인간 내면이나 사회의 단층이라 제시하며, 어떻게 하면 내면과 의미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 길잡이가 되어준다. 발칙한 그러나 친절 한, 그리고 고마운 미즈오씨!

III. 동화, 현실의 작은 우주

그림 형제의 <생명의 물>은 “내면 탐구 여행 이야기 중 대표적인 작품”에 속한다. 여기서는 물의 상징성, 형제들의 성격과 행동, 갈등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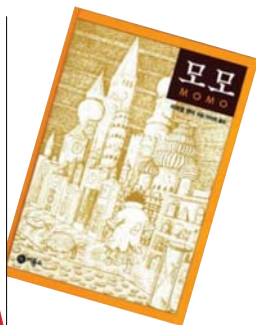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DR, Ph.D.).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상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등이 얽혀져 있는데, 저자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기쁨과 활력과 내적인 풍요로움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이 생명의 물 없이는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인생은 황량하고 공허한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p.85)



안드레센의 <별거뻐는 임금님>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래서 유머와 아이러니 수준으로 동화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츠오는 이렇게 의미의 속살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근원적인 단순함과 솔직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별거뻐는 모습 그대로의 인간, 즉 선과 악,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육체와 정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전히 있는 그대로의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p.128)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수수께끼 형식으로 풀어간다. 시간은 느끼고 있을 때는 알 듯 하지만, 그에 관해 질문하게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우리가 획득해서 달성하는 것,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러한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주인인 삶이 있는 신이 우리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한정된 시간 사이에 생명을 부여해준 것. 그 신이 허무의 위험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바로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p.173)

그런 행세의 <대부가 된 죽음의 신>은 삶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죽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에서, 메멘토 도미니(K.바르트), '주님을 기억하라'로 나아가갈 때 가능해진다고 말한다(p.220).

IV. 동화와 신앙 세계

동화 해석을 통해 미츠오는 동화에서 인생의 의미, 인간의 자아 실현, 자연과 세계 이해 방식, 철학적 가치와의 만남, 한계상황(K.아스퍼스)에 서 있는 인간 이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인간 등을 관찰해 내고, 궁극적으로 철대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안내한다. 동화는 어원적으로도 "



기본 소식, 복음을 알리는 소식"(p.237)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동화 해석을 통해 "신앙 세계의 비유로서 독해하는 것, 신앙심을 배양하기 위한 안내로서 배워 보는 것"은 가능하다(p.237) 동화가 신앙 생활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실행해 보인 신학자 중에 본회파가 있다. 그는 나치 시대에 정규 신학대가 폐쇄되자 실교자 학교를 세워 신학 교육에 힘썼는데, 그는 "신앙의 숨은 뜻, 신앙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 실교에 걸맞은 표현 형식 내지 언어 형식을 탐구하다가, 마침내 일상성을 초월한 신비를 이야기하는 동화의 언어를 발견"하였다(p.239).

V. 동화를 다시 돌아보라

동화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신앙적인 면이 적지 않다.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면 비판할 요소가 종종 보인다. 인물이 비상식적인 경우도 있고, 내용 전개가 비약적이며, 갈등 해결 방식도 신비적, 오컬트적이거나 무신론, 범신론적인 영향도 받고 있다. 때로는 기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다. 동화이지만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잔혹함도 스며있는 이야기도 있다. "신학적으로 동화는 현세주의적이고 일차원적이며 반종말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p.242). 하지만 이런 뒷면이 동화의 전부는 아니다. 미츠오의 연구는 동화의 밝은 면을 더욱 빛나게 한다.

동화를 읽다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요소를 만나게 된다. 예를 들면 길 위의 여행자, 여행을 떠나는 이들, 이들은 인생이 "본질적인 것, 진실한 것"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자로서 인간을 비유한다. 나아가 동화 대부분은 "기본적인 신뢰"를 기본 골격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엄스런 상황, 어두운 세계 등이 등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성은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진 세계를 기초로 한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은연 중에 "신뢰하라, 희망을 잃지 마라"(p.242)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안에 "존재와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 즉 희망을 전해준다. 동화는 그런 뜻에서 "근원적인 신뢰의 세계" 위에 존재하며, "동화에서 우리가 신뢰를 배우는 것은 동화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암호와 접촉하는 것"이다(p.245).

이 책의 결론같은 부분은 이렇게 끝맺는다. "동화는 인간이 그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즉 자기 자신이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동화는 은총과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인간이 은총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을 환기해 준다는 의미에서 신앙을 위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p.249)... 동화는 우리가 선한 분에게 신비롭게 보호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p.256) 있다. ☺